

적으로 주타액선 종양으로 확진되어 입원치료 받았던 환자 총 104명을 대상으로 그 임상적 양상과 치료성적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후향적 방법에 의해 실시하였고 종양의 부위별, 성별, 연령별, 조직학적 분포, 술전 진단방법의 종류 및 정확성 등을 조사하였으며 악성종양일 경우에는 치료방법, 경부전이 재발빈도 및 5년 생존율을 구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들도 같이 조사하였다.

성별분포상 남자가 48례, 여자가 56례로 여자가 조금 많았다. 양성종양이 79례로 이하선이 57례(72%), 악하선이 22례(27%), 설하선은 1례도 없었다. 악성종양의 경우에는 총 25례로 이하선이 19례(76%), 악하선이 4례(16%), 설하선이 2례(8%)였다. 조직학적 분포상 양성종양일 경우에는 pleomorphic adenoma가 가장 많았으며 악성종양일 경우에는 high grade mucoepidermoid carcinoma가 가장 많았다. TNM stage상 I, II기는 15례였으며 III, IV는 10례였다. 경부전이의 경우 N0는 17례였으며 N+는 8례로 high grade mucoepidermoid carcinoma와 ca ex pleomorphic adenoma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치료후 국소재발이 5례로 가장 많았고 원격적이 2례였다.

악성종양환자중 사망한 경우는 총 8명으로 모두 high grade malignancy였으며 17개월내에 사망하였고 전체환자에 대한 평균 생존 기간은 56개월이었다. High grade malignancy의 경우 5년 생존율이 57.0%였다. T stage에 따른 생존율은 T1, T2의 경우에는 92.9

%였으며 T3, T4의 경우에는 36.4%였으며 N stage에 따른 생존율은 N0인 경우가 82.4%, N+인 경우가 37.5%로 생존율이 T와 N stage에 연관됨을 알수 있었다. 술전 등록과 안면마비의 경우에는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14

### 두경부 이차암의 임상적 고찰

정 근\* · 김정배 · 민헌기 · 김영민 · 노영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이차암이란 조직학적으로 악성이고, 해부학적으로 원발암과 다른 부위에 발생하며, 원발암으로부터 전이된 경우가 아닌 것(Warren and Gates, 1932)으로 정의되는 암종으로서의 이러한 이차암은 두경부암의 중요한 중앙생물학적 특성 중의 하나이다. 저자들은 이차암 환자에 대한 임상 양상을 분석하여, 두경부암 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치료에 도움을 얻고자 1987년부터 1994년까지 함림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에서 이차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